

연중 제20주일

기도서 P. 415 B해

제1독서(잠언 9, 1-6)
 제2독서(에페 5, 15-20)
 복음(요한 6, 51-59)

숲정이

발행인 법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장 함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강론



없어지지 않을 음식

이종원 신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인간의 생명은 매일 매일 지탱해 나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음식은 일시적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지만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해도 또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옛부터 먹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을 음식을 찾아 해매였으며 꿈꾸워 왔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을 잠깐 놀라게한 기적을 보이자 백성들은 예수님께 억지로 달려들어 왕으로 모셔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백성의 뜻과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배만 채우는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것입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빵은 곧 나의 살이며, 그것으로 세상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요한 6. 51)

사람이 사람을 먹다니! 누가 감히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말인가?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모질고 야속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빵이라고 하신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 빵의 모양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겠다는 변화를 말씀하신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놀랍고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미사때 마다 목소리를 합하여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치는 성체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색이 없어질 양식만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십시오”(요한6. 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과 안일로 바쁘게 허둥대는 우리의 생활에서 좀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타당한 준비와 열성을 가지고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신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신문의 사명?

언론학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신문에 대한 평가 내지 비판의 기준중의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련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 관한 문제에서 신문이 국민이나 독재자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 양심적인가? 자유주의 신문은 아마도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하고 비밀의 장벽을 깨뜨리고 정부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유권자가 되도록 기여한다. 이것이 단순한 대화인가? 아니면 신문이 그 자체의 정규적인 활동에서 진정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유주의 언론에 있어서 신문에 대한 평가 기준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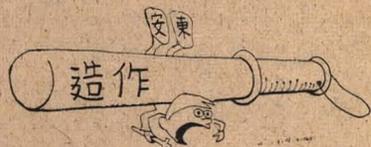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라면 신문은 국민이 정부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선 올바르게 알게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체제나 권력에 의해서 신문의 고유한 독립성이 말살되고 조작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방적인 보도가 될 때는 그를 대하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한 것이다.

신문은 국민으로 하여금 단순히 알게 해 주는것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균등있는 논쟁(論爭)과 견해가 펼쳐지는 현실적인 장(場)이어야 하고 국민여론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안동교구에 대한 신문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의아심을 품게하는 것은 물론, 사명을 다하려는 신문의 뒤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는 몰라도 그 어느때 보다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의 신문의 올바른 사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신문은 묻혀있는 진실까지도 국민앞에 공정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을 선도해야 할 양식과 양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숲정이 산책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

짓밟힌 농민·짓밟힌 교회

—가톨릭 농민회원 납치·폭행 그리고 허위 조작, 구속사건 전모—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람들, 또 그런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맥 없이 보도하는 오늘날 소위 「制度言論, 메스컴」의 말을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을까?

지난 8월 10~14일자 전국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된 소위 「가톨릭 농민회 사건에 대한 보도」는 어쩌면 그렇게도 못되게만 풀린 권자(權者)들이 꾸밈있게 둘러 조작, 잔재주를 부렸던가 꽤 그럴싸까지 했다. 뜻있는 사람들 마저도 골이 들을때 할 정도로—

이제 그 사건의 진상과 잔악무도한 기관의 조작 그 허상을 일부 요약해 본다.

1. 사건 개요

지난 5월 5일 전국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이사 오원춘(알봉소: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 분회장) 형제가 모 기관원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되어 생사조차 알지 못해 애태우던 중 보름이 지난 5월 21일에야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렸던 그가 근 한달 가까이를 말 못하고 고실하다 6월 13일에야 이 사실을 본당 신부님께 폭로, 친인공노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급기야 안동 사제단과 정평위 및 전국 농민회가 분개, 사건 규명과 항의 그리고 그 만행 규탄에 나서게 됐으며 7월 17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성직자·수도자 세미나에서 그 전모를 밝히게 됨으로써 문제화 됐고 이에 당국이 당황, 급속으로 「조작극」을 연출해 냄으로써 사건이 확대됐다.

2. 사건 배경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억제하고 그 투사들의 운동을 억압하려다 저질러진 참사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오래전부터 농민의 인간적 지위 향상을 물론, 농민의 권익옹호와 복지 사회건설 그리고 그리스도적 사랑과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농촌 현장에서 땀 흘리며 투쟁해온 단체요, 오형제는 바로 그 「현장교회」의 선봉 역군이었던 때문이다.

오형제는 바로 78년 10월 80% 이상이 폐농하게된 청기면의 「감자피해 보상 운동」에 앞장섰었고, 책임 농정 구현을 위해 싸워 농민 승리의 사례를 남기면서 계속 농민 활동을 하고 농민을 일깨운 죄(?)로 미운털이 박혀 있었고 이미 「요 주의 인물」로 소위 경고를 받아오던 대상 인물이었다.

3. 사건의 진상과 허상

그래서 결국 힘 없고 가난한 농민회원은 그만 권력자에 당하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겁 없이 “체제에 도전하

는 촌놈의 새끼”의 기를 꺾고 더이상 「활동」을 못하게, 감쪽같이 잡아다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 내팽개쳐 물매를 퍼 부으며 단단히 엄포를 주고 돌려 보낸것이 그만 서툰 기관의 낭패작이 됐던 것. 그리고 그 비행의 탄로가 커지자 또다시 그 엄청난, 아니 너무도 악랄하고 비열한 제략과 「허위 조작극」을 교묘히 만들어 오히려 그와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언제부터 이 정부 기관이 소위 거물급도 아닌 한 “촌놈”의 긴급조치 위반(?) 사실을 그렇게도 소상히 또 대대적으로 방송, 보도해 왔었던가? 기자회견도 시켜 주고?? 그뿐 아니라 그를 옹호할 수 있는 술한 증거를 제시하는 교회측의 말은 단 한마디도 표현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감금해 놓고 마음대로 조작, 허약한 농부라 해서 함부로 터무니 없는 패륜아르까지 훼손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더구나 어실폰 수작으로 감히 성스런 「고백성사」까지 도용, 무식보다도 더한 「성사모독」까지 서슴잖는 저 무모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시골의 한 농부가 이 엄청난 사건을 무서운 기관을 암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감히 조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장검증 중 납치 경현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 순서와 납치과정을 생생하게 머뭇거리듯 없이 재현할 수 있을까?...

갈수록 불신은 깊어만 간다.

4. 교회의 함성, 우리들의 태도

아무튼 우리는 알고 있다. 오형제가 지금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정신을 잃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거짓을, 그 흑막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끝내 가기전 그가 직접 밝히고 써둔 오원춘의 「양심선언」을 굳이 믿는다. 그리고 연행된 7월 27일부터 이 사실을 위해 20여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고 있는 정호경 신부님과 수백명의 농성사제, 회원들, 또 이를 찬동하고 성원하는 전국 수만의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의 함성과 결의를 믿는다.

그뿐 아니라 이거 이런일들 때문에 활동 탄압을 받고 수감돼 있는 문정현 신부님과 수많은 양심 수인들, 민주인사 그리고 지각있는 국민들의 성원도 믿는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확신을 갖고 진실의 증거를 다짐하고 그를 위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각오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교회에서 배부하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검정고시(고검·대검) 주·야

교정·보도직(국·史·社·법제·국운)

공인 감정사·행정·세무직·부기

개강: 8월 20일

이리 **경문학원**

원장 한정상



잡혀가기 전에 써둔

「오원춘의 양심선언」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전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법이다—하느님이 새겨주신 법을 인간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 받을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방이요 인간이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지성소이며 이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온다.”(사목헌장 16항)

여기 한 인간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양심의 소리이다.

진정 우리는 신앙인의 눈으로 이 양심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신앙인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외쳐진 이 양심의 외침이 과연 거짓이겠는가?

양심선언

본인은 가톨릭 신자로서 소명을 다하여 농촌사회에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76년 12월부터 가톨릭 농민회 운동을 시작하여 이웃 농민들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애써오던 중 79년 5월 5일 영양 배스 정류장에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납치 당하여 안동을 거쳐 포항 모진물(포항제철 부근 갯빛건물) 안에서 이유도 모를 폭행을 당하고(체제에 반항하는 놈은 그냥들 수 없다며 폭행하였음) 울릉도까지 15일동안 강제 격리된 상태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낸 사실이 있어 이를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서 구성한 조사단과, 농민회 조사단, 본당신부님께 하느님께 받은 양심에 의하여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체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이며, 만약 반복된다면 이는 외부적 압력이나 위협에 의한 강제적 결과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나의 동료 형제들에게 또다시 쏟아 질지도 모르는 이런 폭력과 압력 밑에서...

주여! 작은 저희들을 지켜주소서.
영양 천주교회 십자가에 달린 신부님아래서.

1979년 7월 5일

오 원 춘

요심이 (316) 김병오



사진자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림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 유가애마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점 옆)
전화 ② 6219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타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M^cGREGOR

맥그리거

삼선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번
유 율리야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계)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팅)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수시·접수〉
신설! 세로이 인가된 학원

주 산·타 자 <주·야간>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새로운 타자기 완비

김계읍 오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판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442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전국 기도회...20일<월>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2. 전교사 연수회...8월 29일<수>~31일<금>, 가톨릭 센터에서
대상: 교구내 전교수녀 및 전교사(사무장 포함)
 3.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제2차 회장단 회의...26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4.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8월 19일<일>
범위: ① 주요기도문 ② 루카복음 전체 ③ 교리서 19과-그리스도 제명편 앞
 5.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움 월례회...19일<일> 오후 2시, 파티마 성당에서
각 꾸리아 및 지속 브리시디움 꼭 참석 요망
 6. 제 7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예선...26일<일> 오후 2시, 합일성당에서
 7. 제 7지구 청년연수회...29일<수>~31일, 화산성당에서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일일 익명 5천원, 복자성당 현직교사·대학생 1만2천원 감사합니다
 상관 이상호 신부님 영명축일은 본당 주보축일과 결합합니다

(종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19일<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오늘(19일)부터 합니다
3.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합니다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오전 11시부터 소양천에서
구역장, 반장, 각 단체의 회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 하세요
 3. 견진성사 준비: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견진신청서를 가져다 8월 19일~31일까지
접수하세요
 4.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하계교리와 첫 영성체 교리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6,696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식
사도 회장 유제상

1. 성령기도회: 8월 21일 저녁 8시
기도속에 생활합니다
 2. 감사합니다: 제대꽃 제대초-최엘리사벳, 장메레사
성당 제대중, 정마르코, 박도니카 부부
 3. 주일학교 개학: 8월 26일 오후 2시
 4. 다음주 월례회: 전부회 부녀회
 5.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체벨렛다씨 지도,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전진부님 지도
 6. 영화상영: 경비 55,850원, 잔액 45,140원
- 지난주 봉헌금: 48,930원 교무금: 130,04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견진사 신청: 26일까지 신청을 안하면 견진성사 받
지 못합니다.
견진교리: 9월 3일~15일(주일과 화요일 제외)
매일 저녁 8시 30분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에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조성호, 장동주, 박상기, 강기연, 김화영, 유기순,
이기배, 노선경, 박노안, 김성원, 고기만, 최용구
(각 5,000원), 서용현, 임종을, 김복수, 홍명선, 구
정자, 이호재, 옥경주, 임한진, 최결순, 최순덕(각
3,000원), 정운주, 이인자, 이경호, 강영애, 최소자
송영자, 백남호(각 2,000원), 조 식(500원),
계: 104,500원 감사합니다
3. 봉헌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금액을 매주일 빠짐없이 봉헌 바람
4.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허메레사씨 지도
매주 <화> 저녁미사후-박신부님 지도
5. 모든 신자들은 신용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주고 도움
을 받으십시오
6. 반회장 회합: 25일<토> 저녁미사 후

- 반회장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7. 성모 승천축일 제대꽃 사도신분: 오다시안나, 윤분
도, 이메레사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38,26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2. 중·고등학생 시화전: 강당
 3. 수요기도회: 22일 오후 8시30분
 4. 감사: 하기교리에 금일봉
원명숙, 최정희, 김정수, 박형식, 김한기, 김명숙
- 지난주 봉헌금: 88,12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 영성체 준비교리: 매일 오전 8시30분
 3. 중·고등학생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4. 바자회 개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형제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5. 음악회 월례회-신협미사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 신축기금 납부해 주신분
김기만(10,000원), 임옥자(2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39,778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김기성

1. 꼬미씨움: 오후 2시(파티마 성당)
 2. 미사시간: 20일<월>~24일<금>까지
아침미사는 없음
 3. 첫 영성체: 오전 10시미사
- ※ 주일학교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득수, 이종두, 장금태, 박도식, 유종현, 최덕순,
정창희, 유숙자, 성가정희, 유석중, 고수창, 한정숙,
오남이, 한태수, 현종순, 한규화, 이영희, 최성용,
장애자, 문혜준, 유공수, 권태욱, 김정민, 송재진,
이덕수, 조미령, 최유순, 정순복, 김제순, 김복운,
이후정, 양인숙, 배양길, 조재복, 김대원, 은영은,
양현홍, 조지영, 이세시리아, 김진덕
- 지난주 봉헌금: 303,170원 동소승천: 244,95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수감중인 분당신부님을 위해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여러분의 정성을 사무실에서 접수
하고 있습니다
1. 분당신부님 병명축일미사: 24일<금> 저녁 8시
신부님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당일 10시미사 없음)
 2. 사도회: 금일 저녁미사 후
 3. 파티마본당 어머니모임: 21일<화> 9시30분(신용조합
앞), 장소-고덕산장 옆구 하천(각시바위 상단)
회비-1,000원
 4. 꼬미씨움: 금일 오후 2시(파티마 본당)